

우리나라 닭고기 소비량 15.4kg 시대

최 근 발표한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이 15.4kg으로 보도 되었다. 1990년 4kg, 1995년 5.97kg, 2000년 6.92kg, 2005년 7.58kg, 2010년 10.68kg, 2012년 11.58kg, 2013년 12.5kg(대한양계협회 자료)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4년부터 15.4kg으로 돼지고기에 이어 닭고기 소비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회원국 34개국) 국민 1인당 평균 육류 소비량 63.5kg 보다 적은 51.3kg(쇠고기 11.6kg, 돼지고기 24.3kg, 닭고기 15.4kg)을 소비하는 것으로 선진국 일수록 전체 육류소비량은 많아지며, 품목별로 닭고기와 쇠고기의 소비량은 많아지고 돼지고기의 소비량은 낮아진다고 한다. EU국가를 제외하고, 1인당 GDP(국내총생산) 3만 달러를 기준으로 육류 소비성향에 변화가 나타나는데, 1인당 GDP 3만 달러 이상 국가에서 닭고기 소비량이 다른 적색육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건강에 대한 관심 등으로, 소비자의 백색육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우리나라도 1인당 GDP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백색육 즉 닭고기 소비량이 훨씬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 닭고기 부위를 보면 닭다리, 닭 날개, 닭 가슴 이 세 부위가 대부분이며, 아직도 우리나라 닭고기는 통닭으로 유통이 많이 되고 있으며, 사육 또한 출하 체중이 낮기 때문에 부분육을 할 수가 없어, 부분육 시장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대형 닭 사육을 하루 빨리 정착 되어야만 수입 닭고기와 경쟁 할 수 있다. 대형 닭 사육을 하기위하여 계열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야 하나, 계열업체는 수입 부분육을 사용하는 것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 보다 원가가 낮다는 이유로 대형 닭 생산을 미루는 것은 육계 산업 발전에 역행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GDP가 증가함에 따라 닭고기 수요가 증가될 것을



김 의 겸

산내들농축 대표
/본회 이사, 천안육계지부장
/양계마이스터
/본지 편집위원

예상 할 때, 언제까지 닭고기 부분육 시장을 수입에 의존할 것인지 계열업체에 묻고 싶다.

일반적으로 육류 섭취량이 증가 할수록 복부 비만이나 고지혈증, 대사증후군, 대장암 등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적색육 섭취량과 관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같은 육류라도 백색육인 닭고기는 관련이 없고, 오히려 닭고기는 많이 섭취 할수록 대장암 발병률이 낮아 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백색육을 먹으라는 말이 있다.

- 1고, 3저 식품!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저콜레스테롤

적색육은 근육 사이에 지방이 있지만, 닭고기 근육에는 지방이 없으며,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칼로리가 높아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비만위험에 있지만, 닭고기는 그러하지 않다.

- 고기는 먹고 싶은데 암이 걱정된다면 닭고기를 먹자!

닭고기의 불포화지방산과 리놀렌산이 암 발생을 억제해주기 때문이다.

- 두뇌활동을 촉진시켜 치매를 예방한다!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한 닭고기는 두뇌성장과 세포조직의 생성을 도와주며, 두뇌 활동을 도와 준다.

- 소화 흡수가 좋다!

닭고기 근육은 섬유질이 가늘고 연하여, 어린이나 노인에게도 좋은 식품이다.

- 닭고기 부위별로 골라먹자!

닭 날개와 닭발에는 콜라겐이 많아 골다공증, 피부미용에 좋다.

- 간 기능 개선과 시력회복에는 닭의 간을 먹자!

닭의 간에는 비타민A, B, 빈혈과 시력이 좋아

지게 하며, 좋은 무기질이 풍부하다.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닭 가슴살을, 맛으로 치자면 영양학적으로 단백질과 지방함량이 다른 부위보다 많아 맛이 좋은 닭다리를 먹자.

이와 같이 좋은 닭고기는 국민 건강식으로 손색이 없으며, 홍보를 잘하여 소비량이 더 많아져야 한다. 15kg을 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빠른 기간에 20kg이상 도달 한다면 육계산업은 급속도로 발전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 닭고기자조금 대의원회의에서 자조금관리위원장은 이제 닭고기는 적색육인 쇠고기, 돼지고기와 경쟁을 하여야 하므로, 백색육인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하여 올해 TV 직접광고 계획을 세웠다. 지금까지 소비홍보는 단순히 닭고기를 더 먹자는 광고였다면, 앞에서 언급한 백색육인 닭고기의 우수성에 대하여 집중적인 광고가 필요하다고 본다. 소비·홍보는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라 생각하고 육계인 모두가 힘을 합쳐 나서야 한다. 홍보비의 자금은 닭고기자조금사업의 활성화로 하여 농가와 계열사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아직 까지는 닭고기자조금사업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만, 금년부터는 계열사에서 적극 협조한다는 좋은 소식이 전해진 만큼 거출금 향상을 기대하여 본다. 최근 몇 년간의 불황을 되새겨 보고, 이를 극복하는 길은 닭고기 수급균형을 맞추기 위한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 과잉 생산된 닭고기의 소비 활성화 이 두가지가 이루어질 때, 안정적인 육계산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 질 수는 없다. 차근 차근 계획을 세워 농가와 계열사가 머리를 맞대고, 진정한 상생이 되고 Win-Win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글을 마친다. 양계